

강원고성신문 주최 긴급좌담회 ‘속초지역의 통합 건의, 어떻게

“아파트 신축, 속초 거주 공무원·군인

일부 찬성 의견 반대로 돌리기 위한 비전 제시 필요 ... “재래시장서 젊은 부인들 볼 수 없어”

☞ 긴급좌담 3면에서 이어짐

△사회= 일단 참석하신 패널들의 의견을 간단하게 다 들어본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안숙녀씨를 제외하고는 모두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입니다. 아울러 이번 기회에 고성군이 다시는 통합논란에 휩싸이지 않도록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삶의 질을 높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고성군이 통합 논란에 휩싸이지 않도록 지역을 성장 발전시키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균형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밤만 되면 간성 시가지에 사람은 다니지 않고 고양이만 돌아다니는 암흑천지가 된다는 글이 올라와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실제로 많은 주민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성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발전적인 대안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자유롭게 말씀해주시죠.

고성군 성장·발전 논의

△안숙녀= 공무원들은 속초에 나가서 사는 것에 대해 거주이전의 자유라고 하지만, 지금 간성은 밤이면 죽음의 도시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애항심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살고 있지만, 제일 타격받는 사람들은 장사하는 사람들이다. 가게는 비어가고 경기는 없고, 저희는 먹고 살지만 자식들이 걱정이 된다. 대학교 1학년 아들이 있는데, 얼마 전에 집에 왔다가 하루 밤만 자고 바로 첫차를 타고 올라갔다. 여기 오면 사람이 안사는 것 같다, 죽음의 도시 같다고 한다. 그런 소리를 들으면 부끄럽고, 속이 아프다.

△함명준= 안 대표님의 말씀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통합이 됐을 때 이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겠느냐 하면,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통합이 되면 오히려 더 가속화될 수 있다. 통합이 된다고 해서 고성군에 사람이 유입된다고 하면 할 필요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더 나빠질 수 있다.

△안숙녀= 그렇다면 대안이 있나요?

△함명준= 대안이 있다. 제가 의회에 들어가기 전에 환경단체에서 활동을 했는데, 의회에 들어가 보니 환경도 중요하지만 먹고 사는 일도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다. 환경과 상충되는 기업체 가운데 고성에 들어오기를 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동안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성군과 군의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 논의를 해봐야 한다. 물론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소중한 땅이지만, 조금은 친환경적인 기업체라고 해도 기준이 있고, 법률적으로 제한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업체도 유치하면 고성도 살기 좋은 지역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사회= 함 부의장님 말씀은 대안의 하나로 환경에 다소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경제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업체가 있다면 유치하자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안숙녀= 그런 부분은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덕용= 안숙녀 대표께서는 통합하면 좋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시지만, 4개 시·군이 통합되면 모든 것이 설악시(속초)로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고성에는 대형마트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물건들도 속초가 더 싸고 많다. 지금은 고성군민이라는 자긍심과 사명감이 있는데, 설악시민이 된다면 그런 것이 없어질 것이다. 교통권도 하나로 묶여지면 고성군 상권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으로 생각된다.

대안으로는 함명준 부의장이 말씀하신 큰 기업을 유치하는 방안 등에 동의한다. 얼마 전에 화력발전소도 환경 피해가 10%고 경제활성화가 90%라면 유치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있었지만, 앞으로도 그런 기회가 있다면 적극 유치하는 노력을 경주할 생각이다.

그리고 의정연수원 건립으로 고성군 브랜드 가치가 상승되고, 금강산 육로관광이 재개되면 충분히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 특히 승용차 관광이 전면 실시되면 인구 유입효과와 함께 경제적 효과가 상당히 커질 것으로 생각한다. 아울러 화진포 종합관광단지가 들어서면 한화위터피아에 버금가는 관광객 유입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본다.

△이영일= 안 대표가 통합에 찬성하는 것에 대해 충분히 이해는 간다. 그러나 통

합이 됐을 때 더 많이 낙후될 것으로 본다. 인구가 3만 이하로 떨어졌던 것은 전국적인 추세다. 마산-창원 등 통합이 돼야 할 지역이 통합이 됐는데도, 얼마되지 않아 벌써부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인구는 많은 쪽은 발전될지 모르지만 농촌지역은 피해를 많이 봤다.

△안숙녀= 의정연수원은 토성면에 있어서, 간성 경제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 금강산 관광이 재개된다고 해도 고성에는 당장 숙박업소가 없고, 사우나도 없다. 군인들이 사우나를 물어보면 금강산콘도나 켄싱턴콘도를 말해주는데, 켄싱턴콘도에 갔다가 다들 속초로 나간다. 가장 시급한 게 숙박업소와 사우나다. 그리고 아파트다. 통합이 되면 안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살기가 너무 힘들다는 게 중요하다.

군부대와의 협력 관계 진단

△사회= 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합니다. 제가 오늘 좌담회를 앞두고 간성 시가지의 상가 주민 몇 분과 대화를 나눴는데, 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찬성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왜 찬성하느냐고 물으니, 통합을 하나 안하나 마찬가지로 차라리 통합이라도 해보는 게 낫지 않느냐는 겁니다. 어차피 더 나빠질 것이 없다는 건데요.

△이영일= 저는 주민들이 찬성을 해도 좋는데, 알고 찬성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지금 홍보지를 만들고 있다. 통합했을 때 좋은 점과 나쁜 점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설명해서 주민들이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사회= 잠시 화제를 다른 쪽으로 돌려 보겠습니다. 오늘 좌담회에서 여러 가지 대안들이 제시됐는데, 고성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군부대와의 협력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대리 포사격 문제처럼 해결해야 할 민원들은 해결을 하면서, 군인 가족들이 고성군에 정착해서 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면 인구 증가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동균= 이덕용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중장기 계획도 필요하지만, 사람이 당장 배고플 때 빵을 줘야 하는데 맛있는 떡이

있으니 좀 기다리라고만 할 수는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20여 년이 되어 가는데 고성군은 과연 다른 지자체에 비해 경쟁력이 얼마나 될까? 공무원의 자질 문제와 리더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겠는가. 배를 몰고 가는 선장이 나를 따라오라 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한다면 통합에 대한 이야기가 아예 나오지 않을 것이다.

군인아파트 경우 2년 전에 주공과 협의가 안되어 군인들이 속초로 다 빠져나갔는데, 그 다음에 한 일이 무엇인가. 속된 말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사정이라도 해야 하는데, 협의에 실패했는데 어찌란 말이냐는 식으로 나온다면 살고 있는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답답한 노릇이다.

위정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먹고 사는 걱정을 하게 해서는 안 된다. 심하게 말하면 표를 위한 활동을 반만 줄이고 지역을 위하고 공익을 위한 활동을 한다면, 지금 이렇게 낙후되었을까? 주민들의 삶의 질이 지금보다 나아지고 지금 같은 통합 논란에 휩싸이지도 않을 것이다.

△김용자= 의정연수원 들어오고 금강산 관광 재개되면 여름 한철에는 좋겠지만, 저처럼 귀농하는 사람들은 얼마 없을 것이다. 시장 경제가 활성화가 되느냐 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이 왔다가지만 치에 기름 넣는 것 밖에 없다고 본다. 여기 처럼 사람이 살기 좋은 곳이 없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을 여기에 정착시키려고 공무원들이 얼마나 노력을 하느냐. 특수작목이 없어서 제가 해보려고 하면은 공무원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시도도 안해보고 무조건 안된다고 한다. 양양 같은 경우는 기술센터에서 나와서 홍보하는 걸 보고 감탄을 많이 했다. 양구도 우리보다 열악하지만, 귀농인들과 합세해서 단지화를 해서 귀농인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한다. 통합이 되고 안되고가 문제가 아니라, 통합을 안했을 때 더 좋아진다는 보장도 없지 않느냐. 통합을 안한다면, 공무원들이 앞으로 우리 지역을 얼마나 더 좋게 만들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영일= 어천리에 농장이 좀 있는데, 몇 년 사이에 외지에서 많이 들어왔다. 군에서 정책을 조금만 더 개발하면 상당히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함명준= 저도 귀농에 관심을 갖고 많이 살았는데, 건의도 하고 꾸준히 견제하고 제시하는 시민단체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오늘도 좌담회에 나오기 전에 황종국 군수와 귀농 문제 때문에 의논했다. 죄송하다. 앞으로 더욱

“가게는 비어가고 경기는 없고 ... 현재 먹고 살지만 자식들이 걱정”

“일부 공무원 속초 사는 것 문제지만, 통합이 되면 거의 다 나갈 것”